

# “시민이 선택한 변화, 성과로 증명”

## 여주시장 서영학

여주시장에 당선된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이 선택한 변화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여수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정치 신인인 저에게 여주시장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그 선택의 무게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시민 기대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선택으로 평가했다.

서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변화를 선택한 여주시민의 승리이자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보내주시는 시민들의 승리”라며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신뢰와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민심을 균형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시민들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려



서영학 여주시장 당선인이 지지세력들과 함께 꽃다발을 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앙정부·통합특별시와 협력해 여수 대전환 다짐

달라고 했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시민 삶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력을 통해 여수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행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여수시가 하나의 팀이 돼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여수시가 긴밀히 협력해 여수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순천 약속”

## 순천시장 손훈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에 당선된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순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손 당선인은 4일 당선 소감을 통해 “순천시장 선거에서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승리는 손훈모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순천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손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함께한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의 신뢰와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순천시정의 핵심 과제로는 동부권 상생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손 당선인은 “여수와 광양, 고흥 등 인근 도시들과 협력해 동부권이 하나



손훈모 순천시장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함께한 당원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고 있다.

### “시민 중심 시정 구현”...동부권 상생·경제 활성화 추진

의 경제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 간 경쟁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구축해 전남 동부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원팀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적극 확보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손 당선인은 “조심을 잃지 않고 시민 곁에서 소통하며 순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통합과 경제 도약 광양 열겠다”

## 광양시장 박성현

광양시장에 당선된 무소속 박성현 당선인이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광양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정당하게 지켜내신 위대한 광양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고 평가했다.

박성현 당선인은 4일 당선 소감을 통해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컷오프라는 족쇄를 채우고, ‘출마를 못한다’는 등 온갖 네거티브 등을 통해 주저앉히려 했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며 “사법부가 ‘박성현은 정당하다, 출마하라’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을 때, 그리고 거리에 나선 저에게 ‘박성현, 억울해서 어쩌고, 우리가 지켜주게’라며 손 내밀어 주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대립과 갈등은 용광로처럼 모두 녹여버리고, 이제는 15만 광양시민 모두를 가슴에 품는 ‘통합의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성현 당선인은 광양시민의 눈치만 보며 소신 있게 일할 것을 약속했다.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이 점진 끝에 당선에 최종 확정되자, 두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 미래 30년 책임질 성장 동력 만들기 약속

박 당선인은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목포해양대 총장을 지낸 저의 모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쏟아부겠다”며 “제습 컨테이너 등 첨단 산업 유치와 북극항로 선진, 신산업 대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진짜 경제 CEO 시장’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온갖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저 박성현이 광양의 미래 30년을 책임질 확실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우는 자랑스러운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 “중단 없는 발전으로 곡성 미래 완성”

## 곡성군수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당선인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 곡성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다시 한 번 곡성군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보내주시는 신뢰와 기대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승리를 개인의 영광이 아닌 군민들의 뜻이 담긴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이번 선택은 곡성의 변화를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는 군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상래 곡성군수 당선인이 중단 없는 발전으로 곡성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지지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 “분열 넘어 화합으로 더 큰 곡성 만들 것”

그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며 “곡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의 토대를 완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 지역 통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당선인은 “치열했던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할 시간”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바탕으로 곡성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곡성=김영규 기자 hnnews1@gwangnam.co.kr

# “군민 화합과 행복한 구례 만들기 최선”

##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수에 당선된 장길선 당선인이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분열을 넘어 화합하는 구례를 만들고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승리는 더 나은 구례를 만들고자 하는 군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기간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존중의 뜻을 표했다.

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시는 군민의 격려와 응원은 새로운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다”며 “군민들의 성원이 구례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 이후 군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장길선 구례군수 당선인이 가족과 함께 당선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 기본적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 정책 추진

그는 “군정 운영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과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약 1호로 제시한 전 군민 월리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누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군민이 주인인 새로운 화순 만들겠다”

## 화순군수 임지락

화순군수에 당선된 임지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군민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새로운 화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화순의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더 큰 화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임 군수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이번 선거에서 처음 군수 선거에 도전한 임 당선인은 무소속 후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며 화순군정의 새로운 주인으로 선택받았다.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가치로는 ‘군민 주권’을 제시했다.

임 당선인은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라며 “군수실 문을 활짝 열고 행정 과정



임지락 화순군수 당선인이 군민이 주인인 화순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가족과 함께 축하하고 있다.

### “광역생활권 중심도시·바이오산업 거점 육성”

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중요한 정책은 군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참여 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화순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는 광역생활권 시대를 선도하는 성장 기반 구축,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광역철도의 교통망 확충을 통해

화순을 단순한 배후도시가 아닌 광역권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바이오·의료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 생산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